



고창군이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사고 현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고창군 주민보호훈련 실시

방사능 누출 행동요령 교육·재난사진 전시 등 안전의식 제고

고창군이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사고 현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군은 18일 고창교육청, 고창소방서, 고창경찰서, 매일유업, 군민 등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하, 해리, 심원면과 청소년수련관에서 '2016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지난해 5월 21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되면서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며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기간 중에 마련됐다.

군은 최근 일본과 에카도르, 대만 등에서 강진에 의한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우려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대비한 주민보호조치 강화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지진발생에 의한 한빛원전의 방사능 누출을 가정한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단계별 상황전파, 주민대피, 방호물품 배부, 구호소운영 등을 통해 방사능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구호소에서는 방사능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과 방사능 재난사진 전시 등으로 방사능에 대한 이해와 안전의식을 제고했다.

이날 훈련에 앞서 군은 지난 16일 민방공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공무원, 경찰, 8098부대 2세대 및 민방위 대원, 봉사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및 주민 자율 대피훈련

(20개소)'과 터미널 사거리 등 7개 지점에서 '차량 통제 훈련'과 고창 IC진입로에서 군·경 합동으로 '전시 교통통제소 점령훈련'을 실시했으며,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도 자체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기간 동안 다양한 재난 상황에 따른 대응 능력을 키우는 현장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훈련의 성공적 실시로 후시 모를 재난발생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역량을 키우고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안전고창을 이뤄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농기센터, 누룩 생산 지원

전통주 발전·보급 위해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는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 사업으로 누룩 생산을 위한 작업장 및 누룩 생산 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관내 생산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보급 발전에 힘쓰고 있다. 소규모가공창업지원 사업은 관내 생산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경제활동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누룩 생산 작업장 및 시설을 갖춘 한국발

효(대표 장철기)를 소규모가공창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누룩 생산을 위한 작업장 신축과, 누룩 성형기, 분쇄기, 혼합기 구입을 지원 하였다. 이에 한국발효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급 청주형 누룩을 생산하고 백수환동주국 등 누룩 시제품을 개발하며 내부비건국주 등 40여종의 전통주를 복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지난 2012년 가양주 연구회가 조직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교육과 품평회를 가지며 가양주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경찰, TWO 라이트 캠페인

임실경찰서(서장 이후신)는 18일 임실을 두곡사거리에서 '켜자! TWO 라이트, 지키자! TWO 라이트' 교통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켜자! TWO 라이트, 지키자! TWO 라이트'는 주간전조등, 방화지시등 켜기, 차량신호등·보행신호등 지키기 위한 슬로건이다. 이날 캠페인은 경찰서장, 군청, 모범운전자회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수막과 피켓 및 홍보전단지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신 경찰서장은 "TWO 라이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 교통문화의식 수준 개선으로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남원시는 아파트 밀집지역과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잇는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과속차량에 의한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공사를 6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동권역에 소방안전교부세 1억5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억원과, 동충권역에 45백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투입하여 노후된 보도 정비와 탄성포장, 노면표지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가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도로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점검반을 수시 운영,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의회 재난현장 지원본부 설치안 처리 예정

임실군의회(의장 문홍식)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한 실무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8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3일 까지 6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는 제25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을 결정하고 휴회했으며, 오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의하고 23일 제2차 본회

의에서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칠 예정이다. 문홍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집중호우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사고 예방, 농번기 농자재 및 인력 지원에도 철저히 기해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장애인시설 종사자폭력 대책 추진

주기적점검적발시엄정 조치

관내 모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이 거주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고발을 당해 남원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남원시는 2015년 10월 6일 인권민간전문가의 협조하에 1차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물리적 폭력 등이 의심되어 2015년 10월 21일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2015년 10월 26일 해당시설에 인권실태조사 처분지시서를 통보하고 2016

년 3월 18일 1차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원경찰서에서 수사중일때 남원시자체 1차 인권실태조사를 2016년 3월 21일, 2차 민간 인권전문가를 구성해 2016년 3월 29일 실시한바 있다. 남원경찰서 수사결과 시설종사자가 거주장애인에게 대한 지속적인 폭력이 있어 종사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졌으며, 남원시는 2016년 5월 2일 해당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보호

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거주인의 타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의 처분결과에 따라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갈 계획이 있다. 앞으로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전문가들과 주기적으로 함께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간담회 개최

고창군이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오후 박우정 고창군수는 사회 취약계층인 독거노인들에 주 1회 방문과 주 2회 안부전화 등 생활안전 확인, 생활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을 만나 노고를 치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우정 군수는 "그동안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왕성한 활동으로 홀로 어르신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어르신들

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었다"며 "지역 어르신들이 모두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특히 홀로 어르신들이 소외받는 일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인구가 1만7700여명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고창군은 홀로 어르신 수가 4100여명에 이르며 군은 이 중 행정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1180여 홀로 어르신에게 생활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어린이 실명예방사업 실시

임실군은 아동의 건강한 시력 유지를 위해 실명예방사업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실명예방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11개소 3세부터 6세까지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지원을 받아 오는 6월말까지 약시의 조기발견과 시각장애 예방을 위해 생활습관 교육 및 자가 시력검진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력검진표를 배부해 가정에서 1차 시력검진을 실시하고 조사지를 회수, 보건의료원에서 2차 시력검진 대상자를 선별한다. 군은 2차 검진대상자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 시력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지는 안과 병·의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며, 검사 결과 선천성 백내장, 시축아 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진단을 받은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수술비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약시는 조기 발견 시 치료하면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가정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부모님과 유치원,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눈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J&J GRAPHIC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구독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